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협의회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협의회(회장 윤용호)는 12월 11일 평택시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2010년 평택항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운영사를 중심으로 발족해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협의회 윤용호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신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협의회 CEO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귀중한 성금을 준비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저소득 소외가정에게 잘 전달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 평택시 시민단체협의회 '희망의 장학금' 전달

시민단체협의회(회장 최덕규)는 12월 11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한 고등학생에게 희망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평택시가 지난 11월 주최한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성과보고회'에서 포승읍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어머니와 두 동생을 위해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으로 사용하라며 100만원을 후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시민단체협의회 소남영 사무총장은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의 보호와 지원 아래 어려움 없이 생활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은 자신의 고생보다 몸이 약한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걱정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해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금을 받은 조 모군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평택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과 공재광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 학생에게 또 다른 후원자를 연결해 학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라 기자 mamuik@hanmail.net

## 티끌모아 태산 '다원인력 이웃사랑 나누기'

고덕면에 소재한 다원인력에서는 지난 7일 평소 다원인력을 이용하는 일용근로자들의 자판기 수익금을 경기도 공동 모금회를 통해 고덕면 독거어르신 10명에게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고덕면사무소에 기탁했다.

다원인력 대표 김경우는 "자판기를 이용하는 일용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생활형편도 넉넉지 않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자발적으로 자판기 용에 참여했다"며 "힘든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보람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웃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고덕면장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자판기 200원의 수익금을 모아 독거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눠 주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전도사"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미라 기자 mamuik@hanmail.net



## 평택행복나눔본부 '2017 후원의 밤'

### 덕일산업(주) 5천만원 '쾌척'

평택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해 출범한 평택행복나눔본부는 12월 11일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김향순 회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학봉 사무처장, 유의동 국회의원 등 2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했으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평택행복나눔본부에 후원 해온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감사패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덕일산업(주) 유기덕 대표이사는 후원의 밤 행사에 이웃돕기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해 행사를 훈훈하게 해주었다.

덕일산업(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자동차 정밀 부품 소재 개발업체로 평택본사 및 세부사업장에 임직원 500여명이 근무하며, 평택시에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후원해주는 착한기업이다.

평택행복나눔본부 후원의 밤은 연말을 맞아 평택 시민들과 기업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 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 사랑의 이웃돕기 쌀 200포 기탁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유기덕)은 12월 11일 평택시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900만원 상당의 백미(20kg, 200포)를 전달했다.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은 270여 입주 회원사에 12,000여명의 사원들이 있으며 사원과 임직원 모두는 '기업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며 평택시의 발전'이라는 진취적인 생각으로 오늘도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며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유기덕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을 맞이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뜻 깊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도움과 관심이 절실한 곳이 많은데 매년 행복나눔을 실천해 주신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감사하다"며 "정성된 물품은 저소득 위기가정이 훈훈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 평택시 서탄면 축산계

### 불우이웃 방문 기탁품 전달

서탄축산계(계장 이승구·총무 김대원) 회원 50여명은 서탄면 관내 17개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2월 13일 서탄면사무소(면장 홍석완)에 우유, 라면, 사과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으며,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문하고 기탁품을 손수 전달했다.

서탄축산계는 관내 55여명의 축산농가가 모여 결성한 단체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으로 총 2t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율방재단에

가입해 폭설, 폭우 등 재난상황 발생시에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3년 전부터 매년 연말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